

李退溪의 陶山十二曲 연구**

徐 元 燮*

• 目 次 •

I. 導 言	3. 素 材
II. 作品攷	4. 形 式
1. 製作年代와 製作地	III. 結 言
2. 主 題	

1. 導 言

조선조 유학사상 많은 도학자가 배출한 중에서도 주자학을 집대성한 이로는 퇴계를 따를 분이 없다.

퇴계의 학문 성취는 가히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東方夫子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가 도달한 학문의 경지에 대해서 언급한 이가 많은 중에서도 퇴계 학문의 骨子を 말한 이로는 그의 문인 鄭唯一이 있으니, 이제 그의 評을 보기로 한다.

先生の 학문은 오로지 程朱를 표준으로 삼는다. 敬과 義가 夾持하고 知와 行이 竝進하며 表裏가 如一하고 本과 末을 함께 말하며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심어 세운다.

* 전 경북대 국문과 교수

** 경북대 퇴계연구소, 『韓國의 哲學』 제2호(1974) 게재논문

先生學問 一以程朱爲準 敬義夾持 知行竝進 表裏如一 本末兼舉 洞見大原
植立大本若論其至 吾東方一人而已²⁾

이와 같이 퇴계가 성취해 놓은 학문이 위대하기에 흔히들 퇴계를 도
학자 철학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를 논할 때 도학자 철학자적인 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
라 시인 문학자적인 면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만 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퇴계는 哲學者型的 도학자라기 보다는 詩人型的 도학자라
고³⁾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도학자라 하면 정서적인 생활이 결여한 듯한데 비해서 퇴계만은
그렇지 아니하여 풍부한 정서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퇴계가 어느
정도 풍부한 정서적인 생활을 누렸는가 하는 것은 그의 陶山記에 잘 기
록되어 있으니, 이제 그 부분만을 옮기기로 한다.

책을 던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 난간에서 연못을 玩賞하고, 壇에 올라
社를 찾고, 밭을 돌면서 약초를 심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고, 혹은 바
위에 앉아 샘물을 戲弄하고, 臺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혹은 磯上에
고기를 보며, 배안에서 백구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소요하다가 경치를
만나면 興趣가 일어나 한껏 즐기다 돌아오면 寂寞한 방안에 冊만이 벽
에 가득하다… 산새가 즐겨 울고, 초목이 우거지고, 風霜이 차고, 雪月
이 싸늘하게 빛을 내니, 四時의 경치가 서로 다르고, 興趣 또한 무궁하
도다. 大寒·大暑·大風·大雨가 아니면 어느 때 어느 날 나가지 아니
함이 없다. 나가면 이와같고 돌아오면 또 이와같다.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
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
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疑
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 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
如是 返亦如是⁴⁾

2)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類篇 學問, 三張.

3)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瑞文文庫, 1973, p.146.

이 얼마나 悠悠自適하는 정서적인 생활 태도인가? 참으로 시인 문학자의 풍모가 엿보인다.

또, 퇴계는 다른 俗儒와는 달리 우리 시가에도 깊은 이해와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陶山十二曲跋과 漁父歌跋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우리 시가를 이해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직접 12수의 연시조와 여러 편의 가사를 창작하기도 하였다.⁵⁾

이제 본고에서는 제1차적인 작업으로 퇴계의 시조와 가사 중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된 陶山十二曲을 가지고 作者攷와 作品攷에 나누어 作者攷 중에서 생애는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七의 西涯 柳成龍이 지은 年譜와 退溪先生年譜(卷之一·二)를 주로 해서 작성하기로 하고⁶⁾, 作品攷 중에서 주제와 소재는 그의 한시와 대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作品攷

1. 製作年代와 製作地

陶山十二曲의 작자와 제작동기·제작연대·製作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陶山十二曲跋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陶山十二曲跋에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 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 尙惟近世 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

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九張.

5) 時調로 陶山十二曲과 歌辭로 樂貧歌·琴譜歌·相杵歌·勸義指路辭·孝友歌 등이 있다.

6) 作者攷는 徐元燮 李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退溪의 生平과 爲業’ 편으로 옮겼다.

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嘉靖四十四年 歲乙丑暮春既望 山老書⁷⁾

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서 작자는 陶山老人 이황이라는 것과, 그 제작 동기는 우리 東方 歌曲은 대체로 음탕한 음이 많아 입에 담을 것이 못 되고, 翰林別曲類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여 방탕한데다가 비루하게 희롱하고 친압하니 더욱 군자의 所宜로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보다는 근세 李龜六歌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성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낫기는 하나 이 또한 세상을 희롱하고 공손하지 않는 뜻이 있고 온화하고 덕이 적은 것이 可惜하다. 노인(퇴계)은 본래 음률에 능통하지 못하고 세속의 樂을 좋아 하지 않았으나 한가롭게 살면서 병고치는 餘暇에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매양 시로 불렀다. 그러나 이제의 시는 옛 시와는 달라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지는 못한다. 꼭 노래하고자 하면 俚俗의 말로써 엮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풍속과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龜의 六歌를 모방해서 前後 2篇을 지었는데 前篇을 言志·後篇을 言學이라 한다고 하여 한시는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지는 못한다. 만일 노래하려면 우리 말로써 노래를 지어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陶山十二曲을 지었다고 한 것과, 또 이 서문은 嘉靖44年 乙丑 곧 퇴계 65세 때인 明宗 20年(1565 A.D.) 3월16일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嘉靖 44年은 서문 제작연대가 되는 것이지 결코 시조 제작연대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陶山十二曲跋에 이것을 지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노래부르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들으며, 또 아이들도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다. 또 이를 베껴 상자에 감추

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二十四張.

어 두었다가 때때로 보는 이의 버리고 취함을 기다린다고 함이다.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凡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
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姑寫一件藏之篋笥 時
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 覽者之去取云爾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조 제작연대는 분명히 跋을 쓴 明宗 20年 3월
16일 이전이 분명하다.

陶山十二曲에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酒흔디
萬卷	生涯로	樂事	無窮호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라고 하여 天雲臺와 玩樂齋가 보이는데, 年譜에 의하면 玩樂齋를 지은
것은 퇴계 60세 때인 明宗 15年(1560 A.D.) 11월의 일이다.

陶山書堂成 自是又號陶翁 堂凡三間軒 曰巖栖齋 曰玩樂精舍七間 名曰隴
雲 先生每至陶山 常居玩樂齋……其後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也⁸⁾

한편, 陶山雜詠并記에 의하면 陶山書堂은 퇴계 57세 때인 嘉靖 36年
(明宗 12年)에 짓기 시작해서 5年만인 明宗 16年(1561 A.D. · 61歲)
에 완성되었음과 시조에 보이는 天雲臺도 이 때 쌓았음을 알 수 있다.

自丁巳至于辛酉五年 而堂舍兩屋粗成可棲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
…東一間曰巖棲軒…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觀瀾 合而扁之曰 隴雲精舍…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麓亦擬 築臺而名之

8)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 十三張

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嘉靖辛酉日 南至山主老病畸人記⁹⁾

이 두 기록을 가지고 본다면 陶山十二曲은 그의 60세인 明宗 15年 (1560 A.D.) 11月에서 跋을 쓴 明宗 20年(1565 A.D.) 3月 16日 間에 지은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도산서당을 지은 자세한 경위와 그 곳의 형편을 기술한 陶山雜詠并記와 또 그 곳의 빼어난 지세와 경치를 읊은 陶山十八絶¹⁰⁾과 二十六絶¹¹⁾ 및 四絶¹²⁾을 지은 것이 퇴계 61세 때인 明宗 16年(1561 A.D.)의 일이다.

퇴계가 陶山十二曲跋에서 그 제작동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매양 시로 불렀다. 그러나 이제의 시는 옛 시와 달라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지는 못한다. 꼭 노래하고자 하면 俚俗의 말로 써 엮어야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 풍속과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고 하였고, 또 같은 跋에 도산십이곡을 지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로 익혀 불리었고, 아이들 스스로 노래부르며 춤추고 뛰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도산서당을 지은 후 학문과 후학들의 교훈에 힘쓰는 한편 그곳의 지세나 경치의 뛰어난을 十八絶詩로 지었으나 이는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기에는 마음에 차지 아니함이 있어 陶山十八絶과 前後해서 陶山十二曲도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은 퇴계 61세 때인 明宗 16年(1561

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七張~八張.

1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十一張~十四張.

1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十四張~十九張.

1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十九張~二十張.

A.D.)에 그의 故鄉인 陶山에서 李翬의 六歌를 모방해서 지은 것이라 여겨진다¹³⁾

2. 主 題

도산십이곡의 주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言志와 言學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前6曲은 때를 만나고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感興을 읊어 言志라 하였고, 後6曲은 學問修德에 臨하는 心志를 읊어 言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時調 12首에 담겨있는 主題는 <表 1>과 같이 세분할 수도 있다.

<표 1>

主 題	時調數	該 當 時 調
學問修德	6首	後 6曲 全部
江湖閑情	4首	前 6曲 中の 1・2・5・6曲
教誨警戒	1首	前 6曲 中の 3曲
戀主忠君	1首	前 6曲 中の 4曲

<표 1>과 같이 陶山十二曲의 주제는 學問修德이 6수, 江湖閑情이 4수, 教誨警戒와 戀主忠君이 각각 1수이다.

1) 學問修德系 時調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酒흔디
萬卷	生涯로	樂事	無窮헝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雷霆이	破山헝야도	聾者는	묻든느니

13) 金慶漢氏는 陶山十二曲에 對한 研究(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64)에서 創作年代를 時間的으로 그리 멀지않고 생활이 비교적 安定되었던 陶山書堂을 짓고, 들어 앉기 始作한 60歲로부터 그 跋文을 쓴 明宗 20年 65歲 時까지의 5年 間으로 推斷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白日이	中天하야도	曷者는	몸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龔龔갸디	마로리
古人도	날몰보고	나도	古人몰뵈
古人를	몰봐도	너던길	알퐁잇너
너던길	알퐁잇거든	아니녀고	엇덜고
當時에	너던길홀	멧헝를	브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되므슴	마로리
靑山는	엇데하야	萬古애	프르르며
流水는	엇데하야	晝夜애	굿디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愚夫도	알며헝거니	괴아니	쉬운가
聖人道	몰다헝시니	괴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낫등에	늡는주를	몰래라

퇴계는 그의 50세되던 明宗 5年(1550 A.D.) 2월에 퇴계 서쪽 시내 위에 寒棲庵을 지어 堂名을 靜習이라 하고는 그 속에 파묻혀 독서를 하는 한편 모여드는 학도에게 講學을 하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 때 모여드는 학도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은 寒棲庵을 지은지 7年만인 57세되던 明宗 12年(1557 A.D.) 3월에 벌써 寒棲庵의 협소로 도산 남쪽 산수 좋은 곳에 도산서당을 지은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또 그의 문인 鶴峯 金誠一이 지은 退溪實記에 선생은 후학들을 가르침에 염증도 내지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아 비록 병중이라도 강론하기를 그만두지 아니 하였고, 만년에는 도산 기슭에 精舍를 지었는데 책은 벽장에 가득해서 학문을 연구하여 이치를 찾고 고요함을 좋아하여 남모르게 수양해서 즐거워 근심을 잊었다.

訓誨後學 不厭不倦 雖有疾恙 不輟講論 晩年築精舍于陶山之麓 一室岑寂 圖書滿壁 日處其中 競存研索 嘉遯晦養 樂而忘憂¹⁴⁾

고 한 것으로도 퇴계가 만년에 얼마나 學問修德과 後學教誨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학문을 연구하여 이치를 찾고 후진들의 강학에 몰두한 퇴계로서 學問修德을 주제로 한 시조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퇴계는 그의 60세 때인 明宗 15년에 도산서당을 완성한 후에 그곳의 지세나 경치의 뛰어난을 十八絶詩로 지었는데, 이는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기에는 마음에 차지 아니함이 있어 도산 十八絶詩와 전후해서 노래할 수 있는 도산십이곡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前項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本曲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도산 十八絶詩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詩題부터 보면

陶山書堂·巖栖軒·玩樂齋·幽貞門·淨友塘·節友社·隴雲精舍·觀瀾軒
·時習齋·止宿寮·谷口門·天淵臺·天光雲影臺·濯纓潭·般陀石·東翠
屏山·西翠屏山·芙蓉峯

과 같은데, 이는 칠언절구로 되어 있고, 또 26絶詩는 오언절구로 되었으니, 그 시제는 다음과 같다.

蒙泉·冽井·庭草·潤柳·菜圃·花砌·西麓·南泝·翠微·寥朗·釣磯·
月艇·揲遷·漆園·魚梁·漁村·煙林·雪徑·鷗渚·鶴汀·江寺·官亭·
長郊·遠岵·土城·校洞

學問修德을 주제로 한 時調 중 十八絶詩에서 보이는 것은 天雲臺와 玩樂齋 뿐이다.

陶山十八絶詩 중에서 天雲臺와 玩樂齋詩를 보기로 한다.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¹⁵⁾

14)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 實記, 十五張.

15)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光雲影臺, 十三張.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怡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¹⁶⁾

이는 後 6曲 其1에서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환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天雲臺를 옆에 끼고 말숙하고 깨끗한 玩樂齋에서 만권의 책을 벗하고 학문에 몰두한 무궁한 즐거운 일을 말한 사상과 흡사하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두 시보다도 後6曲 其1의 시조와 일치하는 그의 생활기록이 있으니, 다음아닌 陶山記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對案嘿坐 兢存研索 往往有會 于心輒復 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 發於憤悱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繹 以俟其
 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¹⁷⁾

이에 의하면 퇴계는 만년에 玩樂齋에서 책상을 대하고 가만히 앉아 조심히 이치를 궁구하다가 往往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문득 흐뭇하여 밥먹기도 잊어버리고, 또 맞지 아니함이 있으면 벗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얻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발심하는데, 결코 억지로 통하려 하지 않고 한쪽에 두었다가 때로 끄집어 내어 虛心하게 생각하여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學問修德의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학문을 연구하고 닦는 태도와 사상은 바로 學問修德의 시조들에 잘 나타나 있다.

끝으로 그의 50세 때로 부터 寒棲庵에 과문혀 學問研鑽에 몰두하던 그 당시의 심경을 읊은 시와 60세 때로 부터 도산서당에서 學問研鑽과 後進講學에 전념하던 때의 심경을 읊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¹⁸⁾

1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玩樂齋, 十一張.

1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¹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산십이곡 중에서 學問修德의 시조는 그 내용이 고상하고 우아하며 무게가 있어 東方夫子라는 稱으로 추앙받는 퇴계의 高邁한 인품이 풍기고 있다.

2) 江湖閑情系 時調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	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흐료
煙霞로	지불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	聖代에	病오로	늘거가뇌
이둥에	벼라는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有水 로다
빼만흔	굴머기논	오명가명	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논	머리므슴	흐논고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애	月滿臺라
四時	佳興	사롭과	흔가지라
흐믈며	魚躍鳶飛雲影天光이	사	어니그지 이슬고

퇴계는 哲學者型的 도학자라기 보다는 詩人型的 도학자라는 것은 導言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는 哲理만을 깊이 연구하는 일반 도학자와는 달리 도를 체득 실천하는데 힘쓰는 한편 자연을 벗하고 사랑하는 생활로 일관하였다.

그가 어느 정도 자연을 벗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기 위해서 그의 50세부터 별세한 해(곧 講學期)까지의 그의 고향에

18)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退溪, 四十七張.

1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書堂, 十一張.

서의 생활만을 年譜에 의하여 뽑아 보기로 한다.

- 50歲 庚戌 2月 始卜居于退溪之西 構寒棲庵
4月 鑿光影塘
- 51歲 辛亥 是年先生不仕家居
- 55歲 乙卯 6月 哭龔巖于其第 先生撰行狀
撰先妣貞夫人金氏朴氏墓標
冬 入清涼山踰月而還 有遊山諸作
- 56歲 丙辰 6月 編次朱子書節要成
12月 草鄉約
序朱子書節要
- 57歲 丁巳 3月 得書堂地于陶山之南 有改卜書堂
7月 啓蒙傳疑成
- 58歲 戊午 3月 築滄浪臺(後改名天淵)
4月 遊鰲潭
- 59歲 己未 12月 始編宋季元明理學通錄
- 60歲 庚申 正月 跋曹南冥遊頭流錄
11月 答奇高峯書辨四端七情
陶山書堂成
- 61歲 辛酉 3月 築節友社
4月 旣望 泛月濯纓潭
11月 作陶山記
- 64歲 甲子 4月 與諸生遊清涼山 有遊山諸作
9月 撰靜庵趙先生行狀
作心無體用辨
- 65歲 乙丑 8月 與諸生講啓蒙
改定景賢錄
- 66歲 丙寅 10月 撰晦齋李先生行狀且校正文集
作心經後論
- 70歲 庚午 5月 與諸生會易東書院 出陶山與諸生講啓蒙
7月 至易東書院與諸生講心經
8月 易東書院落成往赴
9月 復出陶山與諸生講啓蒙心經

10月 與奇明彥書論心情圖
 11月 以病倦謝遺諸生
 12月 辛丑 酉時 終于寢

이에서 볼 때 퇴계가 자연을 벗하고 자연을 玩賞할 수 있었던 시기는 대체로 그의 50세인 明宗 5年·(1550 A.D.)에 寒棲庵을 지은 때로부터 52세되던 明宗 7年(1552 A.D.) 4월에 弘文館 校理에 除授되어 조정에 나아갈 때까지의 기간과, 60세인 明宗 15년에 도산서당을 완성한 때로부터 64세인 明宗 19년에 諸生과 더불어 淸涼山에 遊覽할 때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퇴계가 자연에 몰입한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것은 寒棲庵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도산서당을 지은 전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있다.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則一室岑寂 圖書滿壁……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疑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 大寒大暑 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²⁰⁾

이는 자연을 玩賞하는 경지를 넘어서 자연에 몰입 沈潛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도산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에 몰입한 그의 일상 생활은 바로 江湖閑情의 시조들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이는 그의 한시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산서당에서의 한가로움을 읊은 愛閒詩를 보면 이렇하다.

林間茅屋石間泉 閒愛秋風灑靜便
 易玩義文一兩卦 詩吟陶邵五三篇
 園容野鹿栖雲宿 窓對沙禽向日眠

2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8호~9호.

不獨身閒心亦泰 任從多病在人先²¹⁾

3) 教誨警戒系 時調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즌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올흐마리
天下애	許多英才를	소겨	말숨홀가

이는 淳風과 어진 人性에 따라 후진들을 教誨警戒해야 한다고 한 시조이다.

그런데, 中章에서 “인성이 어디다흐니” 는 다름아닌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을 支持한 것이고, 終章의 許多英才는 맹자가 말한 君子三樂에서 나온 말이다.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²²⁾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不善 水無有不下²³⁾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具存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²⁴⁾

퇴계는 그의 생애에서 出仕期보다 고향에서 도산서당을 짓고 學問修德과 後進教誨에 힘쓴 講學期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정치가로서보다 학자로서 더 유명하고, 또 그를 東方夫子라고 일컫는 까닭도 그의 학문성취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

2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愛閒, 二十二張~二十三張.

22) 『孟子集註』, 卷之五, 藤文公章句上.

23) 『孟子集註』, 卷之十一, 告子章句上.

24) 『孟子集註』, 卷之十三, 盡心章句 上.

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후진을 教誨하는 한편 인성의 교화와 禮俗을 고루는데 힘썼으니, 그의 이러한 생활태도와 사상은 바로 教誨警戒의 時調로 나타나고 있다.

4) 戀主忠君系 時調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도해
白雪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듬에	彼美一人를	더옥넛디	몰호애
(이듬에	고온호니를	더옥넛디	몰호너)

조선조의 문인 학자들 중에서도 戀主詩(美人詩)를 많이 지은 이로는 松江 鄭澈이 유명하다. 그는 군주로부터 失寵 내지는 소외되어 있을 때 마다 자기의 潔白한 심정과 충성심을 호소하여 서먹서먹해진 왕의 사랑을 회복해 보고자 한 나머지 前後美人曲을 지었고, 또 戀主詩(美人詩)도 지었던 것이니, 이제 그 중에서 몇 수만을 보기로 한다.

一曲長歌思美人 此身雖老此心身
明年梅發窓前樹 折寄江南第一春²⁵⁾

高樓客散夜將闌 歌罷滄浪蠟燭殘
獨采蓮花何處賀 美人千里香雲端²⁶⁾
萬事如今各白頭 夕陽西下水分流
蓬山何處美人在 江月欲生江樹愁²⁷⁾
三千里外美人在 十二樓中秋月明
安得此身化爲鶴 統軍亭下一悲鳴²⁸⁾

이 시에서 미인이란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의 뜻이 아니고 군주란 뜻이다.

25) 『松江原集』, 卷之一, 大帖酒席呼韻, 十二張.

26) 『松江原集』, 卷之一, 次朴希正韻, 十五張.

27) 『松江續集』, 卷之一, 舟中口號, 十六張.

28) 『松江續集』, 卷之一, 詠懷(大駕駐義州時), 二十七張.

문헌에 나타난 예에 의거하여 미인의 뜻을 나누어 보면 1)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美女·美婦·美姬·佳人) 2) 항상 사모하고 있는 군주 3) 漢代 女官의 명칭 4) 才德이 뛰어난 사람(賢人·君子·碩人) 5) 무지개(虹)의 別名 6) 梅花의 별명 7) 美男子·美丈夫·好男子 8) 美國 사람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미인이란 한자용어는 주로 한시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가사나 시조에서는 별로 볼 수 없고 다만 님(임)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美人用語의 대신으로 쓰이고 있는 님의 뜻은 미인의 용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뜻은 없고 다만 우리 시가에서 사용된 용례로 보아 대체로 戀人(愛人)과 군주의 두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²⁹⁾

윗 시조의 終章 중에서 “彼美一人”의 미인이란 다음아닌 군주란 뜻에서 사용된 것이고, 또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終章인 “이등에 고온 흘니를 더욱넋디 묻혀뇌” 의 님의 뜻 또한 군주인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松江과는 달리 戀主詩가 별로 많지 않다. 퇴계집에 보면 많지 않는 戀主詩에 주로 恩君·聖主洪恩·恩典·君恩·聖恩·天恩·國恩·恩波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미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시는 다만 두편 뿐이다.

美人隔天涯 宿昔同所好
相思不能忘 爾來胡不早
我有一畝園 松菊幽貞保
亦有梅與竹 竝我刑臙槁
悵望無與晤 誰哉肯此道³⁰⁾

美人何許隔天涯 夢裏相逢玉帝家
獨自覺來臨碧水 一輪明月映金波³¹⁾

29) 徐元燮, 思美人曲系 歌辭의 比較研究, 慶北大論文集 11輯, 1967.

3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秋懷十一首 讀王梅溪和韓詩有感 仍用其韻, 三十七張.

31)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伏蒙天恩許遂退閒且感且慶自述八絕, 二十九張.

이 두편의 시는 바로 美人詩로 전자는 매화를, 후자는 군주를 말하는 데, 후자의 戀主詩(美人詩)는 위의 시조와 더불어 퇴계의 시 중에서 오직 두편의 戀主詩(美人詩)인 것이다.

3. 素 材

소재란 특수한 가치원리에 의해서 통일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예술품에 대해 아직 예술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일체의 원료, 곧 넓은 의미로는 예술가의 상상활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보다 좋은 의미로 쓰이며 1) 표현 수단으로서의 감각적 물질적 재료, 즉 媒材를 가리키는 경우와 2) 표현의 대상인 일정한 사물 즉 제재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³²⁾ 또 예술작품의 근본이 되는 재료, 자연적 환경, 인간의 행동 감정 따위³³⁾를 말하기도 한다.

도산십이곡에서 사용된 소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素材	人物	山	墩臺	道	家屋	季節	疾病	萬古	해(太陽)	鳥	我(나)
頻度數	13	5	4	3	2	2	2	2	2	2	2

素材	水	雲	風	岩石	淵泉	風流	雷霆	煙霞	朋友	生涯	白駒	萬卷
頻度數	2	2	2	1	1	1	1	1	1	1	1	1

素材	太平聖代	淳風	人生	天下	幽蘭	歲(年)	魚	谷	野	花	月
頻度數	1	1	1	1	1	1	1	1	1	1	1

<표 2>에 의하면 도산십이곡에서 사용된 소재는 모두 34종류로, 이 중에서 5·6개만을 가지고 이들 소재가 그의 한시에서는 어떻게 사용

32) 『世界大百科事典』, 學園社, 卷九, p.70.

33)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p.1173.

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도산십이곡에서는 인물이 소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한시에서도 많은 인물이 소재 또는 시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上龔巖李先生과 次韻權生好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高臺新曲賞深秋 手折黃花對白鷗
仰德至今清夜夢 月明時復到中洲³⁴⁾

適洛人皆走越如 應綠澆薄喪眞餘
吾心正似天開鏡 古學還同日照書
博約淵源寧有雜 明誠宗旨不容疎
可憐才能馳騁 只恐當前本領虛³⁵⁾

둘째, 산이 소재로서 5회 사용되고 있는데, 시조에서는 구체적인 산 이름은 보이지 않고 다만 山前·破山·靑山 등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의 문집에 보면 산을 두고 노래한 시가 많고, 특히 陶山十八絶에서도 東翠屏山·西翠屏山·芙蓉峯 등을 노래한 것이 있으니, 그 중에서 西翠屏山을 보면

巖巖群峯右翠屏 中藏蘭若下園亭
高吟坐對眞宜晚 一任雲浮萬古靑³⁶⁾

과 같고, 또 遊山書事十二首 중에서 登山을 보면 이러하다.

尋幽越澗壑 歷險穿重嶺
無論足力煩 且喜心期永

34)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上龔巖李先生, 三十七張.

3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次韻權生好文, 三十七張.

3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西翠屏山, 十三張~十四張.

此山如高人 獨立懷介耿³⁷⁾

셋째, 墩臺가 소재로서 4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회만은 구체적으로 天雲臺라 표현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有臺·臺下·月滿臺라 하고 있으나 이는 다 天淵臺와 天雲臺임을 짐작케 한다. 퇴계는 인물과 산에 못지 않게 墩臺도 소재로 해서 많은 시를 짓고 있는데, 그의 문집에 戲作七臺三曲詩³⁸⁾와 遊月瀾菴七絕³⁹⁾을 비롯한 많은 墩臺詩가 있는 중에서 陶山十八絕 중의 天淵臺와 天雲臺를 보면 이리하다.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⁴⁰⁾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嘆長⁴¹⁾

넷째, 가옥이 소재로 사용된 것이 2회인데, 그 중의 하나는 玩樂齋이다. 문집에는 蠶石樓·臨風樓·嶺南樓·聚勝亭·統軍亭 등등의 시도 보이는데, 이들을 樓亭으로 보아 가옥과 구별한다면 그의 한시에서는 가옥을 노래한 것은 인물·산·墩臺詩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陶山十八絕에는 陶山書堂·巖栖軒·玩樂齋·隴雲精舍·觀瀾軒·時習齋·止宿寮 등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玩樂齋와 隴雲精舍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主敬還須集義功 悲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⁴²⁾

37)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登山, 二十九張.

38)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二張~三十四張.

39)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二十一張~二十二張.

4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淵臺, 十三張.

4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光雲影臺, 十三張.

4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玩樂齋, 十一張.

常愛陶公隴止雲 唯堪自悅未輪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閒情野鹿分⁴³⁾

다섯째, 계절에 대한 소재 또한 그의 한시에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林居十五詠 중의 早春·初夏·早秋·初冬·暮春⁴⁴⁾ 등과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⁴⁵⁾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또,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節詩는 春·하·추·동에 나누고 각 계절을 또 朝·晝·暮·夜로 구분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계절의 暮詩만 소개하기로 한다.

童子尋山菜蕨薇 盤殮自足療人飢
始知當日歸田客 夕露衣沾願不違⁴⁶⁾

夕陽佳色東溪山 風定雲閒鳥自還
獨坐幽懷誰與語 巖阿寂寂水潺潺⁴⁷⁾
秋堂眺望與誰娛 夕照楓林勝畫圖
忽有西風吹雁過 故人書信奇來無⁴⁸⁾
萬木歸根日易西 烟林蕭索鳥深樓
從來夕惕綠何意 怠欲須防隱處迷⁴⁹⁾

여섯째, 질병에 대해서 보면 시조에서도 『태평 성대에 병으로 늘거가 뇌』라고 하였듯이 퇴계는 壯年이 되어서는 건강체가 못되고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이제 한두 기록을 보기로 한다.

4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隴雲精舍, 十二張.

4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張~四張.

4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五張~七張.

46)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春, 五張.

4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夏, 六張.

4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秋, 六張.

49)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冬, 七張.

滉之處身其亦難矣 何也 大愚也 劇病也 虛名也 誤恩也⁵⁰⁾

余恒苦積病纏繞 雖山居不能極意讀書⁵¹⁾

또, 그의 年譜에 의하면 辭狀 중에서 病辭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는 관직에 뜻이 없어 자주 사표를 내었으니, 그 중에서 狀의 형식을 취한 것이 36회, 啓의 형식을 취한 것이 14회, 疏의 형식을 취한 것이 3회⁵²⁾가 된다. 그 중에서 病辭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工曹參判病告乞免狀

禮曹判書病告乞免狀 二

判中樞府事 兼 大提學病告乞免狀 三

吏曹判書病告乞免狀 三

또, 그의 문집에 병을 시제로 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몇을 보기로 한다.

病中有客談關東山水慨然遠想復和前韻⁵³⁾ · 病中得金季應書二絕⁵⁴⁾ · 十六日病吟二首⁵⁵⁾ · 病中贈別洪同知太虛謝恩越京⁵⁶⁾ · 三月病中言志⁵⁷⁾와 같다.

위의 기록 뿐 아니라 그의 自銘에도 분명히 生而大癡 壯而多疾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그는 壯年에 이르러서는 多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손수 약초를 심어 服藥도 많이 하고 약을 구하러 사람을

50) 『退溪先生文集』, 卷之十七, 答奇明彥, 三十七張.

5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52)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51 (瑞文文庫, 1973. 8. 20)

53)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三張.

5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張.

5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二張.

56)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十二張.

57)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十六張.

보내기도 하였다.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⁵⁸⁾

重重積病等丘陵 藥裏君臣有減增
道驗若神難對證 試方偶中已稱能
庸工失診輕生誤 良劑無傷久見徵
但得服勤差少病 何妨瘦驗似枯藤⁵⁹⁾

靑山入夢覺難尋 舊雨來人不到今
與子隔隣同抱病 不妨分藥共愁吟⁶⁰⁾

이상에서 시조에 사용된 소재와 또 그 소재가 사용된 한시를 찾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한시에서 잘 사용된 소재들이 시조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에서는 그렇게도 많은 詠梅詩의 소재가 된 매화가 시조에서는 한번도 소재로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화초가 있겠지만 퇴계가 매화를 좋아한 것은 일반인에서 지나칠 정도이다. 퇴계가 평소에 매화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임종 직전까지도 侍奉者에게 盆梅에 물을 주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辛丑 酉時 終于寢 是日朝令侍人灌盆梅 酉初命整臥席 扶起而坐恬然而逝⁶¹⁾

또, 도산서당을 짓고 당사 동편에 작은 못을 파서 淨友塘이라 하고,

58)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5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服藥, 二十三張.

60)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病中李子發求藥, 二十二張.

61)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下, 五十八張.

그 동편에 蒙泉이 있는데 샘 위 산기슭을 파 낮춰 觀瀾軒과 가지런히 하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고 節友社라 했다.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
對平築之爲壇
而植其上 梅竹松菊 曰節友社』⁶²⁾

도산서당 부근에도 매화를 심어 놓고 이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陶山十八絶에서도 節友社에 매화를 노래하고 있다.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若節清芬儘飽諳⁶³⁾

그는 고향 陶山에 있을 때만 매화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관직으로 서울에 있을 때도 盆梅를 곁에 두고 사랑하였으니, 漢城寓舍盆梅贈答과 盆梅答의 시가 바로 그것이다.

頓荷梅仙伴我涼 客窓蕭灑夢魂香
東歸恨未攜君去 京洛塵中好艷藏⁶⁴⁾

聞說陶仙我輩涼 待公歸去發天香
願公相對相思處 玉雪清真共善藏⁶⁵⁾

다시 말해서 퇴계는 임종 직전까지도 盆梅에 물주기를 잊지 않을 정도로 매화를 몹시 사랑했던 것이나 한시에서와는 달리 시조에서는 이를

6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七張.

6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節友社, 十二張.

64)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漢城寓舍盆梅贈答, 十四張.

65)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盆梅答, 十四張~十五張.

그런데, 註 63), 64)의 詩는 누가 寄贈한 盆梅를 漢城寓舍에서 그 香氣를 즐기다가 致仕歸田할 때 携帶치 못함을 哀惜히 여겨 主人과 梅花가 주고 받는 形式의 詩를 이렇게 지은 것이다.

소재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4. 形 式

종래 우리는 단형시조를 3장 내외 6구 45자로 된 정형시라 하고, 중형시조를 단형시조의 초·중장 중 어느 한 장이 자수에 있어 무제한한 시조다. 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⁶⁶⁾고 하고, 장형시조는 초·중장이 다 제한없이 길고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시조다⁶⁷⁾라고 해서 시조의 각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해 校本歷代時調全書(沈載完 編著)에 수록된 3,335수의 시조로써 그 音數律과 개념을 다시 고찰한 바 있다.⁶⁸⁾ 그 결과 놀랍게도 중형시조와 장형시조는 그 音數律의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고, 개념 규정 또한 이러한 音數律의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필자가 고찰한 각 시조의 개념과 音數律을 보기로 한다. 단형시조는 시조 3장 중에서 각 장은 내외 2구로 되어 있고, 각장의 자수는 20자 이내로 된 시조이다. 총자수로 볼 때 37자에서 58자까지로 된 시조로, 그 기본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章別\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初 章	3	4	4·3	4
中 章	3	4	4·3	4
終 章	3	5	4	3

66) 高晶玉, 『國語國文學要綱』, p.396.

67) 金思燁, 『李朝時代の 歌謠研究』, p.254.

68) 徐元燮, 時調의 概念攷, 語文學, 35號, 1976.

_____, 時調의 音數律研究(옛시조, 辭說時調를 중심으로), 語文論叢, 8號, 1973.10.

중형시조는 시조 3장 중에서 초·중장은 대체로 단형시조의 자수를 유지하고, 중장은 그 자수가 40자까지 길어진 시조이다. 총자수로 볼 때 41자에서 98자까지로 된 시조로, 그 기본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章別\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初 章	3·4	4·5	3·4	4·5
中 章	3~9	4~9	3~10	4~10
終 章	3	5~11	4·5	3

장형시조는 시조 3장 중에서 초·중장은 대체로 중형시조의 중장의 자수와 일치하고, 중장은 그 자수가 제한없이 길어진 시조이다. 총자수로 볼 때 70자에서 811자까지로 된 시조로, 그 기본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5>

章別\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初 章	2~8	3~8	3~8	4~9
中 章	7~17	7~17	8~18	8~16
終 章	3	5~12	4~6	3~5

그런데, 도산십이곡은 비록 연시조이긴 하나 그 하나 하나의 시조를 놓고 볼 때 그것은 단형시조이다.

하기에 여기서는 도산십이곡의 음수율을 고찰하여 그 기본음수율과 단형시조의 기본음수율을 대비해 보기로 하겠다.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음수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音數律 \ 章別	初 章	中 章	終 章
2 3 3 4		3	
2 3 3 5		1	
3 3 3 4		1	
3 4 2 4	1		
3 4 3 4	7	2	
3 4 3 5	1		
3 4 3 6		1	
3 4 4 3		1	
3 5 2 4			3
3 5 3 3	1		
3 5 3 4	2	3	
3 5 4 3			6
3 6 4 3			1
3 7 4 3			1
3 10 4 3			1

<표 6>에 의하면 초장에서는 3 4 3 4조가 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고, 중장에서는 2 3 3 4조와 3 5 3 4조가 각 3회, 3 4 3 4조가 2회 사용되어 있고, 종장에서는 3 5 4 3조가 6회, 3 5 2 4조가 3회 사용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이 시조에서 사용된 주음수율은 초장에서 3 4 3 4조, 중장에서 2 3 3 4조 내지 3 5 3 4조, 종장에서 3 5 4 3조가 된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章別\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初章	3	4	3	4
中章	2·3	3·5	3	4
終章	3	5	4	3

<표 6>을 가지고 다시 각장을 각 音步別로 나누어 각 음보에 사용된 자수의 頻度數를 보아 그 기본음수율을 내어 보기로 한다.

<표 8>

章別	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字數				
初章	2			1	
	3	12		11	1
	4		9		10
	5		3		1
中章	2	4			
	3	8	5	11	1
	4		4	1	9
	5		3		1
	6				1
終章	2			3	
	3	12			9
	4			9	3
	5		9		
	6		1		
	7		1		
	10		1		

<표 8>에 의하면 초장 제1음보에서는 3자로 된 것이 12수이고, 제2음보에서는 4자로 된 것이 9수이고, 제3음보에서는 3자로 된 것이 11수, 제4음보에서는 4자로 된 것이 10수이다. 중장 제1음보는 3자로 된 것이 8수이고, 제2음보에서는 3자로 된 것이 5수, 4자로 된 것이 4수,

5자로 된 것이 3수로, 3자와 4자가 거의 백중세로 사용되어 있고, 제3음보에서는 3자가 11수, 제4음보에서는 4자로 된 시조가 9수이다.

중장 제1음보에서는 12수가 모두 3자로 되어 있고, 제2음보에서는 5자로 된 시조가 9수이고, 제3음보에서는 4자로 된 것이 9수, 제4음보에서는 3자로 된 것이 9수이다.

이에서 각 음보에 사용된 자수의 빈도수로써 본 도산십이곡의 기본음수율은 다음과 같다.

<표 9>

章別\音步別	第1音步	第2音步	第3音步	第4音步
初 章	3	4	3	4
中 章	3	3·4	3	4
終 章	3	5	4	3

<표 7>과 <표 9>를 비교해 볼 때 중장 제1음보와 제2음보에 나타난 수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표 7>의 중장 제1음보에서의 2자와 3자는 다같이 3회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서 <표 9>의 중장 제1음보에서는 3자가 8회로, 2자의 4회보다 그 사용된 빈도수에 있어 훨씬 우세하고, 제2음보에서 비록 사용된 빈도수의 우세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지 모르나 주로 3자·4자·5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서 다시 <표 7>과 <표 9>에 나타난 도산십이곡의 기본음수율을 단형시조의 기본음수율에 비교해 본다면 중장 제2음보에서 4자의 사용빈도수가 확고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도산십이곡은 단형시조의 기본음수율에서 볼 때 중장이 파괴된 시조인 것이다.⁶⁹⁾

69) 陶山十二曲의 音數律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徐元燮, 陶山十二曲과 高山九曲歌의 比較研究, 『清溪 金思燁博士 頌壽紀念論叢』 1973.

Ⅲ. 結 言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해서 그 종합적인 결론을 내어 보기로 한다.

1. 퇴계의 가계를 보면 공민왕 때 紅巾賊의 난과 증중반정 때에 공이 있어 두분이 封君된 외에는 별로 顯達한 분이 없었고, 일품직에 오른 것은 퇴계가 처음이다.

2. 도산십이곡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도 陶山十二曲跋과 시조에 나타난 天雲臺와 玩樂齋의 지은 시조 등으로 살펴 보았고, 그 결과로 이는 퇴계의 61세 때인 明宗 16年(1561 A.D.)에 그의 고향인 도산에서 李麓의 六歌를 모방해서 지은 것이었다.

3. 도산십이곡에 담겨 있는 주제와 해당 시조는 다음과 같다.

- 1) 學問修德의 시조는 모두 12수 중에서 6수로 후6곡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 2) 江湖閑情의 시조는 모두 12수 중에서 4수로 전6곡 중의 1·2·5·6곡이 이에 해당한다.
- 3) 教誨警戒의 시조는 오직 1수로 전6곡 중의 3곡이 이에 해당한다.
- 4) 戀主忠君의 시조는 오직 1수로 전6곡 중의 4곡이 이에 해당한다.

4. 도산십이곡에 사용된 소재는 모두 34종류이고, 이 중에서 인물·산·墩臺·가옥·계절·질병 등에 대해서는 그의 한시에 사용된 소재와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시조와 한시에 사용된 소재들은 퇴계가 잘 쓰는 소재였다.

5. 소재면에서 특기할 것은 퇴계가 임종 직전까지도 侍奉者를 시켜 盆梅에 물주기를 당부한 정도로 지극히 사랑한 매화가 한시에서는 많이 詠梅詩의 소재로 되었는데 비해서 시조에서는 전혀 언급치 않았다는 점이다.

6. 형식에 있어서는 시조 12수에서 사용된 음수율을 찾아 도시해 보았고, 그 결과 초장에서는 3 4 3 4조가 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중장에서는 2 3 3 4조와 3 5 3 4조가 다같이 3회, 3 4 3 4조가 2회 사용되었고, 종장에서는 3 5 4 3조가 6회, 3 5 2 4조가 3회 사용되고 있다.

7. 또 각장을 음보로 나누어 각 음보에서 사용된 자수를 통계내어 기본음수율을 내어 보았더니, 초장은 3 4 3 4, 중장은 3 3(4·5)3 4, 종장은 3 5 4 3이었다.

8. 이렇게 볼때 도산십이곡에서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음수율과 각 음보에 사용된 자수로 통계낸 기본음수율은 다같이 그 중장 제2음보가 단형시조의 기본형에서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도산십이곡은 단형시조의 기본음수율에서 볼 때 정형의 시조인 것이다.